

성 구
그런고로 이제 그
도 예수 안에 있
에 깨는 결코 정죄
없나니
로마서 8장 열절
교야교회 김덕성목사

2月5日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申報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5238
編集兼發行人吳允台

The masthead features the title '基督申報' in large, bold, black Chinese characters. Below it, the English title 'THE CHRISTIAN PRESS' is written in a smaller, black, serif font. The entire title is enclosed within a decorative border that includes stylized grapevines and clusters of grape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宣教25週年

血淚에 젖은教會史
傳道者의 殉敎的 熱情

이날을 위하여 우리가 베푼
구원을 일고 일본에 산
동로속에 꽃보다도 교회
가 이로서게된 유래를 생각해
여흥이 가장 의의있는 동시에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럼으로 오늘날 이와같은
제3회 장지회 총회시에 한서
대강 기록한다면 一九〇九年
在日本宣敎沿革의 연력을

[illegible]

내원수 앞애 상을 배부르고
기름으로 내머리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찬
양하였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역사는 연구할때 만능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
혜를 준 로스목사 一八八四년
한교회는 아나니야사
가 넘쳐났을 찬송가 꽃을 수 九월에
한교회는 아나니야사
가 넘쳐났을 찬송가 꽃을 수 九월에
한교회는 아나니야사
가 넘쳐났을 찬송가 꽃을 수 九월에

教會自立青年

저일은 한국인에 제 카나다장
료로 선교부 전도사업이 시작
된지二十五년여이다. 주一九二
七년 九월에 영재영육사가 전
도한지 二十五년에 정도 교회
역시 지난二十五년에 영도 교
회에서 기념전회를 거행한것이
우리는 그식전에서 밝은 인
상은 어서 자립하여야 한다는
것이이다. 물론 남의 말을 듣지
않아도 자립 하여야 하는 것
이다. 전신도는 명심하여 들고
가며 논박하는 애급에서 고생
하던 이스트라임인종을 구출하여
약속의땅 가나안에 인도 하던
지도자 모세를 부를 같이 재
일 한국인을 위한 위대한신
노력자 영재영육사를 하나 남
사 불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새
우시고 감하고 담대하시
고 같이 여러 부목사 장로전
도대 집사 주일학교선생들을세
운 것이니 감하고 담대하여
여호수아같이 되기바란다. 우리
는 이 일을 위하여 카나다에
서 기도 하겠다 하겠다.
다음으로 드물말은 대한장로
회
것이며 다음 二十五년간 주
五十年間 기념을 맞이 할때에
는 거류교포六七十만명을 포용
하기를 바란다고 하신말씀이다
그다음은 남렬선교사의 一九
五〇년도 선교보고를 읽어 볼
것 참으로 광동지방 미역서교
회와 원조없이 그 교회 회역에
참조였던 회당을 세운것을 칭찬
하고 그러는 것이전부다 교회
에 원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는
데 보고로써는 치나는 두말할
것 없는 훌륭한 보고다. 김원
서전도사가 감사의 말씀을 드

자로 감동하게 되어서 있다. 그러나 선교 二十五주년 되는 절제 않은 연수를 선교회가 비록 불렀다. 받은 교회가 비록 불렀다. 다 한세대면저 정결정년 신도가 남일선교사 보고문에도 九간결정주의도 관계 되어있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 문제도 같다. 오늘날의 세대는 회광과이상에 붙어남자는 민족청년결기의세대가 아님가? 의기소철한 자리에 서 이러나라? 재일은 한국기독교의 발전여하는 자주독립정신에 끝는 청년들의 단결력하에 달린것이다. 모세의 후계자여 호수아는 다른사람이 아니다.



개회 묵도와 송

역사는 신앙 좋은 성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땅에서
사는 밀알 하나의 역할을 충
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게 되는 것과
또한 이와같이 선교사역을 기
념하게 되는 것을 많은 주의 종
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담을
홍려 수고하고 피를 흘려 생
명을 제정한 값인 것이다. 그럼
으로 오늘二十五주년 선교기
념일에 이생명있는 역사와 유
래를 소개한 것이다.

선교기념식 개회를 선언하는 오총회장

경 유학생, 六백명중 신자 백 명을 임종준 목사가 지도하였고 신조지방에는 노동자 수천 명중 신자 十三명을 광덕생목사가 인도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一九一九년에 또 동경에는 예배당 八개소 당시구내에 동경에 유학생 八백명 대판에 백명 노동자 四만 신조지방에는 임택전목사가 시무 하였고 예배당을 위하여 백二十九원을 얻고 하였다.

一九二〇년 조선장로교 추회에서서는 일제삼주일 연호를 위 일본과 해외의 전도사일을 위 하여 하기로 결정하고 전도국에서 신조지방에 목사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一九二二年에는 강이곤목사가 신조지방 전도목사였고 예배당은 七개소 신자 수 백二十九명 이었다. 一九三三年 일본전도는 장로교 감리교 두교파가 만류되어 장강양교 연합회의로서 二천원을

유한하면 전일본에 목사수인 소개한다면 七인 신자 二천四百力 전도사 세례인 八백二十六인 회 四十六개소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을수 있게 된 까닭이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쉽게 읽을수 있으나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의 불완전함을 회고한다면 진실로 감격의 눈물이 없을수 없다. 우리의 성경번역은 두말 데 길이가 있었는때 둘다 국의에서 시작되었다. 즉 만주와 일본에서인데 만주에서는 一八七五年 스토크랜드선교사때 건타에서가 한국인과 함께 번역하기 시작하여 一八八二년에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 번역을 완성하여 스크트랜드에서 인쇄

한 역이 완성되어 정통 예배당에 대축하회를 개최하였던 것 이다. 一九〇二年 목포에서 열린 위원회에 참석하려고 아펜젤라 목사는 조윤구씨와 함께 배를 타고 인천을 출발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파선을 당 하여 아펜젤라 목사는 조윤구씨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물타 물속에서 도라가셨다. 아펜젤라 목사는 한국 기독교인으로서는 읽을수 없는 순교자이다. 전언에 의하면 그는 깨어진 선체가 파도속에 삼켜 들어갈 때 백九十六장「마주 예수를 더욱 사랑」의 찬송을 높이 부르면서 물속에 사라졌다고 한다. 우리손에 쥐여진 성경책

한글 聖經翻譯

의 신앙이 컸다. 다 잘 아는 우 목사 해운 의사 一八九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선교단 부산에 오신 메비사 선교
제는 북장로교 남장로교 미국 사 一八九二년에 오신 이
감리교(처음에는 남북 감리교 목사 一八九四년 황해도 송천
이었다) 호주 장로교 캐나다 연합 선교회(처음에는 카나
다 장로교)였다.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이와 같은 여러
교단제의 초대 선교사들의 신앙은 독실하였던 것이다. 잘 아
는 바와 같이 초대 선교사들은 신앙이와 같이 초대 선교사들
이 온자열마 아니되여 중국에 서복을 전하는 선교사 열부사
가 한국을 방문하여 선교방법을 논의하였는데 그것을 통
칭 일부사 불란 즉 한국 천도부침 인 것이다. 그 방점은
삼전으로 전도 교육 의로웠 다. 각파 선교사들은 이기론방
침에 합심하여 연합으로 공회 회를 조직하여 북을 전도에 힘
쓰는 중 한편으로 평양에 신학교를 세워 목사 양성을 하였으
는 신앙이 컸다. 다 잘 아는 우 목사 해운 의사 一八九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선교단 부산에 오신 메비사 선교
제는 북장로교 남장로교 미국 사 一八九二년에 오신 이
감리교(처음에는 남북 감리교 목사 一八九四년 황해도 송천
이었다) 호주 장로교 캐나다 연합 선교회(처음에는 카나
다 장로교)였다.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이와 같은 여러
교단제의 초대 선교사들의 신앙은 독실하였던 것이다. 잘 아
는 바와 같이 초대 선교사들은 신앙이와 같이 초대 선교사들
이 온자열마 아니되여 중국에 서복을 전하는 선교사 열부사
가 한국을 방문하여 선교방법을 논의하였는데 그것을 통
칭 일부사 불란 즉 한국 천도부침 인 것이다. 그 방점은
삼전으로 전도 교육 의로웠 다. 각파 선교사들은 이기론방
침에 합심하여 연합으로 공회 회를 조직하여 북을 전도에 힘
쓰는 중 한편으로 평양에 신학교를 세워 목사 양성을 하였으

開拓者매커지

우리는 우리의 온인 영목사들
기뻐하리라 할 때 다른 한사람도
기억치 않을수 없는 이가 있다
그는 누구인가? (一八九四년에
황해도 송천에 왔다가 그 다음

의 열세의 소식이 전도부에 들리

내원수 앞애 상을 배부르고
기름으로 내머리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찬
양하였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역사는 연구할때 만능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
혜를 준 로스목사 一八八四년
한교회는 아나니야사
가 넘쳐났을 찬송가 꽃을 수 九월에
한교회는 아나니야사
가 넘쳐났을 찬송가 꽃을 수 九월에
한교회는 아나니야사
가 넘쳐났을 찬송가 꽃을 수 九월에

[illegible][illegible]

업어지다. 어퍼지다

振替・東京四三三

大韓長總
權會長

宣教二十五週年記念式典

加一層僑胞教化要望

저 일본 한 국 중 고 신교
주 년 기 념 식 을 행 할 아
한 마 디 인 사 를 돌 아 나
파 에 의 하 면 재 일 본 한
의 대 표 자 들 이 이 처 럼 수 다 하
는 것 이 며 빛 나 는 성 파 에 기
대 하 는 바 있 기 나 외 이 성 전 을 게

戰時中閉鎖之遺憾

宗教에서眞實한生活로
京都高山市長祝文

波瀾重疊地過去

西都教會井田健司 목사

다는 것은 감개무량한 일이
 해방 되기전일을 생각 한
 연 이 二十五년은 피란 중
 한 험한길 이 었던 것이 다.
 도 한곳만 이라고 회상 하여도
 련과 을을에 싸인 거름이
 속 되 었던 것이 었을는지
 가이 서 잘 알 았다. 표적 묘지
 함 끼 한 판 게로 짚은 밭 까
 도 잘 안다. 전인선복사께서
 신 승려 자을인줄 알 때 그 개가
 수우려 지는 바이다.
 역려 은은 파거에 홀로한 신
 앙을 지쳐 왔으나 왔으도 일
 은안에서 동포교화 하는 일과
 아을너 조국재건과 교회 의 근
 은사명을 완수 하는 일에 더욱
 쓰신 역활이 있기를 바라 마
 지 않는다.

險路를 걷는 우리教會

落心이前進만 해라

에 녹음을 전하고 있었는 것이 다
거기에 영록사님이 카나다 장
로교회 선교사로서 정식 재일
동포에게 소개 되었으며 한국교

밀려왔든 것이 다.

유사 이래로 보기도 문심사찰
배문제 예배장내 (가미다나)
설치문제 국기경례 궁성요배
남요문제 용거의제한동 교각나

월 에 현남독사부인 맥구려선생
이 오시었고 一九二九년九월에
마도날선생이 왔으며 一九三
〇년에는 브올피 압대선 양씨
나로고 一九三〇년에 나로고

그해 六월에 남보라목사님 부부가
가 오시게 되여 재건하려는 재
한국교회에 새로운 서광을
더하였다. 그러나 안식하여야

도소가	十四개소	표역자	남녀
十六명	신도	남녀	九百四十二
명이며	예배당재건과	신축은	
十개소이다.	전화를	면한	예배

記

記



人生의基本基督敎
民族全體를 敎化
전 세계가 말라하야 기독교
인생의 기본정신으로 신앙
아니 하오면 아니될 때가
조말라하였읍니다. 그리고 조국
현금을 요할하여 보아도
전체가 기독교 정신
강조될 삼천리 강토가 초

가하고 민족의 한 사람, 민단의 한 사람으로써, 민단, 경도본부, 대표하야, 한국기독교교회와, 카나다선교부의 대발견을, 축원하야, 마지않으며, 이로써 사들 마치나이다.

一九五二年一月二十九日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
김도환부
대표 양명두——

週年

一、讚
一、說
一、式
一、聖
一、祈
一、讚

頁 教 揚 辭 讀 禱 爲

四 李 宗 憲 牧 師
金 德 成 牧 師
司 會 者
京 都 教 會 聖 歌 隊
Dr. Cameron

[illegible]

記
記

의 적이 있었다. 교회회는 날로 발전하였다. 一九四〇년에 원지없는 합동 주일본기독교단에 가입한 때는 六十一개처나 되는 다수의 교회가 있었든 것이다. 역사적 변천은 사람의 개척대로 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점점 강해짐에 따라 우리에게는 박해가 닥쳐왔으며 전도의 자유를 막는 강판과도가

가 지각색의 난관을 겪은 것은 재일한국교회 선교사상의 한 폐지이며 二十五년간의 체험한 필한 후한 불임이는 二十八개처의 교회회를 소진시켜 버렸을 때 당한 사실의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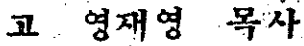
기간 선교사로 오신 분은 一九二七년六月에 교영육사부친가 오시였으며 一九二八年

힘써 할 것이다. 나는 이 기념날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카매론 總務力說

(사진은 설명하는 카메론박사) 재일본 대한기독교총회장과 여러 신도들에게 카나다장로파 여러 신도를 대표하여 말씀을 드린 바 되돌 것을 나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부터二十五년 전 시지암고 개척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영감받은 사람이 시작한 선교 사업에 감격과 감사할 드리는 동시에 후손에게 감하고 감사하리 동시인 금주 二十五年에 다된 수확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기를 행할 때는 때 필요 하였기



功績은永遠하다
初代宣教師榮在馨牧師

한것 같으나 신앙생활에 모
론술보인 그의생애를 통하여
이되요 온해가되기위하여 부득
이 사실을 생각하며 추도하러
하는 바입니다.

그후一八七五년十一月二十一
일 국하주 ○건재물에
○파령이 중립하였으니

한국민인이 생명을 구원의길로이
도하기위하여 一九二七年에 의
논에우리를찾아 오신것입니다.
二十三年간 일본에 전도생애는
파란폭질이 많았음은 一九四
○년겨울에 눈줄을 먹음과 위

열변의 담사는 명위애 남긴 마
지막 감연인 듯합니다.
완함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려
도 신앙의 고집 모다가 재일선
공헌이 되었으며 三十三年
으로 한국을향하여오는 그선교
정신 七十三세나되어 유채는
이二五年기념식에 천명되는
을을 전하라고 하설것이다.
교주들이여 충성을 다하여
이二五年기념식에 천명되는
재일한국교회이나 三十년
년 기념사에는 백배 수천배
되어지기를원할것입니다. 오날
리는 천당에가신 열목사를

란
 것을 상상하면서 이 추도
 들 드립니다.
 주후一九五二년一月二十九
 日 申正二十五주년 기념식
 式
 演·說·者 朴 泰 道
 氏
 主 持 氏

월二十二일	이 자리에서	총회로	오늘	주님나라에서	우리들의
사상경하라는말씀	一九四九년二		부패하고있을것이나	그영은	
오신	노복사님	가는곳마다	감		
다사	바퀴진	이땅에	단신적	역	
자	왔는것입니다	정처저	자사하	않았을나까	
높은음으로	자진하여	이땅에	죽었으며	그나씨를	
조국아	해방되자	七十四순이	관	이	
는	제이차대전이	끝나요	우리		
는	그옛날같은	쓰임되	그		
는	예수의	사자들을	몰라보았		
하는	관현들의눈은	창립평화회			
승수한	전승을	받았으며	감사		
을은	변해변동하기	쉬운	현		
사람에게	받은	사명			
하러게	신앙자	노역과	결		
죽도록	충성하라	는	성경말		
그대로	끝까지	지	이		
죽었으며	그나씨	를	이		
않았을나	까				
그나씨	는	신조	한구	서	
후은	별				
그영은					

오 사 한 에 유 은 스 대
 진도하는 생가하지 않을 수
 예니다. 동양에 신평화하 다
 왔다 가 불교의연변에 부군을
 변하호 그해사월 눈물로 조
 정제 잘개심시요 자멸하는그
 영 그말씀을 삼가한지 더욱
 영을사남을 추모하지 애타할
 없읍니다. 오닐영육사님의 표
 카나 다에서 카의영육사님의
 석에 참서함을 영육사님은
 옥기배하시실줄 믿으 오미 금후

그는 二十五日전에 일본이라는
광야의 여러는께 복을을 전도
하고 지도하여 오다가 하나님
께 복을을 받았었다. 우리는 그
나 하나님을 개송하였다. 우리
는 영육사의 개송자로 하나님
께 세움을 받았다고 불수 있
다. 그의 주위에 있던 육사
자로 전도사 주일학교선생들이
이사업을 개송하는것이다. 하나
님께서는 금후 二十五日간에
나 크신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
위대한 이 세대에 수많은
대적을 이기기 위하여 지도
자 없는길은 험하고 고생도
물 것이다. 영호수야와 같이
나님이 합귀함을 믿고 나아
것이다. 한국인은 성경을 잘
읽는때는 세계에 알려졌으나
귀한 직분을 잃지 말고 성
을 잃어 감질을 바로 잡으
우리는 보나 못으나 한국인
회들 위하여 기도 하려한다

東京教會獻堂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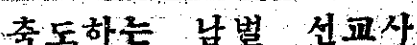
동명교회에서는 오는 三월
二일 오전 十一시에 오후
목사님의 사회로 헌당식을
거행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기를 바란
고한다.

[illegible]

현재 아동수 九백九명이
라나고있다. 월한 파란 속에
시켜주신, 하나님께서는 금후
영원히 인도하여 주실것과
죽을하여, 주실것을
十五년간 지나올때
선교二十五년 영결을
요하는 바이다.
주후一九五二年一月二九日
재일본대한기독교회총회
선교二十五주년 기념식
준비위원

○연에는 서울의 의회
가 오시었고 一九二九年九月에
마도날선생이 왔으며 一九三
○년에는 서울의 의회
가 오시었고 一九三四年에는 마
카이가 오게되어 합 일꾼본이
오시었다. 그간 남선교부의
역선교부가 협력하여 한국남
녀 교역자를 도와주는 일 개척
전도 예배당건축 신학성보조
유치원을 경영으로 복음을 전
파하였다.

一九四〇년에 북쪽이 한 국제
현 남쪽사남부처의 개척하
래에 소명을 받아 처음선교하
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한
국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사남부처의 개척하
래에 소명을 받아 처음선교하
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한
국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illegible]

祝—宣教 25 週年記念—賀

祝電・祝文

大韓基督教總會

關東地方會

關西地方會

西南地方會

勉勵青年連合會

婦人傳導會連合會

張利郁

람은 어느 누구도 몰론 하였고
 어느 한데 어느 한곳에 던져
 그 스스로가 나타나게 될때에
 는 उसके 투명한 순수한 인간
 으로서가 아니오 그가 사람은
 사회의 승판관 종속에 홀백
 져고 또 그럴 그때의 감정과
 기분이 정겨있는 현실적 이요
 구체적인 인간으로서 되는것이
 다. 그런요로 문화와 종교가
 다르고 신분과 지위가 다르고
 혹은 성명도 연령이 같지 아
 니한 사람들을 사이에 어 떠한
 관련이 생길 때에는 흔히 조
 화를 결하거나 혹은 충돌을
 이키는 일도 생길수 있는것
 이다. 오랜 옛날부터 이 인간
 관계는 조정해서 보다 원만한
 관계를 지어보기 위하여 꾸준
 히 힘써온 자최는 오늘날 우리
 가 말하는 예의 도덕 법률등
 에서 찾아볼수 있다.

깊은 것이 들어가서 그 번
 거는 인간이 서로 접촉할수
 있는 곳에 인간관계의 항리화가
 생기는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각방면의 복잡한 모든 문제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주이 참
 된 인간들이 서로 인간답게
 대하고 또 사라는는 문제인것
 이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는 사랑이 순수한 인간성을
 발현하고 견져내는 데 있는것으
 로 믿는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히합사람과 로마 사람들
 찾는것이 아니다. 오직 다정
 은 하나된의 아들과 딸인 사
 람을 찾는것이이다. 안토는 일찍
 그 도덕성에 있어 사람들은 언
 제나 들 목적으로 되여야 하
 고 방법으로서나 수단으로 살
 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인간관계의 이러한 이상은

피시어박사

(14)

사람들이 거기다 농사를 짓는
것으로 그 생활은 문해와 먹는 문제와

을 유지하여 왔읍니다. 그후에 이르러 가족 家 蓄기기를 시작하였고 또 따라서 초장이 草場 좋은것을 찾아 경매 工한 것입니다. 그후엔 대적 문명이 시작 되는때에 그는 비로소 일정한 곳에 있 어져 도시를 경작하고 농작물 을 산출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에 이르러서는 극히 치운 북 없읍니다. 이와같이 모든 사람

콤미니스트 叛亂에 苦悶

죽을때에는 조깅은 한사람도 없은것이라고 할가? 정부나 민간을 물문해하고 그 어떠한가봐 중요한 해임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많은 사람들의 모리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제는 이사람을 좀 잘 사피여 둘 필요가 있다」라고 친구 사이에게라도 공언히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드물수 있다. 그러나 적게나 또는 한번이고 몇번이고 그를 이용하여도 꾀책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한 기회와 이익을 가진다면 그를 처치하거나 아저하거나 향을響 應한다.	「우리들은 이거리의 청년들에게 가장 크고 또 한후원이 될만한 조직을 창립할 필요를 느끼는대로 이 Y.M.C.A.을 시작했읍니다.」 「라고 도라한 고야 코다도우구라무의 주장(主張)은 나의게 말했다. 이 코다도우구라무는 대담이. 저은 거리인데 상임이요 교육들이 있어서도 소규모였는바도 어떤인 도저도에서 차차볼수가 없다. 그러나 파거수년간 코다도우구라무의 일흥은 코미니스트의 반란파 래로의 기사로 남인도 수차나 게재되어 사람	「우리들은 이거리의 청년들에게 가장 크고 또 한후원이 될만한 조직을 창립할 필요를 느끼는대로 이 Y.M.C.A.을 시작했읍니다.」 「라고 도라한 고야 코다도우구라무의 주장(主張)은 나의게 말했다. 이 코다도우구라무는 대담이. 저은 거리인데 상임이요 교육들이 있어서도 소규모였는바도 어떤인 도저도에서 차차볼수가 없다. 그러나 파거수년간 코다도우구라무의 일흥은 코미니스트의 반란파 래로의 기사로 남인도 수차나 게재되어 사람	「우리들은 이거리의 청년들에게 가장 크고 또 한후원이 될만한 조직을 창립할 필요를 느끼는대로 이 Y.M.C.A.을 시작했읍니다.」 「라고 도라한 고야 코다도우구라무의 주장(主張)은 나의게 말했다. 이 코다도우구라무는 대담이. 저은 거리인데 상임이요 교육들이 있어서도 소규모였는바도 어떤인 도저도에서 차차볼수가 없다. 그러나 파거수년간 코다도우구라무의 일흥은 코미니스트의 반란파 래로의 기사로 남인도 수차나 게재되어 사람	「우리들은 이거리의 청년들에게 가장 크고 또 한후원이 될만한 조직을 창립할 필요를 느끼는대로 이 Y.M.C.A.을 시작했읍니다.」 「라고 도라한 고야 코다도우구라무의 주장(主張)은 나의게 말했다. 이 코다도우구라무는 대담이. 저은 거리인데 상임이요 교육들이 있어서도 소규모였는바도 어떤인 도저도에서 차차볼수가 없다. 그러나 파거수년간 코다도우구라무의 일흥은 코미니스트의 반란파 래로의 기사로 남인도 수차나 게재되어 사람
---	--	--	--	--

日本基督教救濟品出荷

만 생각한다면 그를 칭찬하거나
아첨하거나 함은 應한다.

의 건강과 행복과 생명까지 다
도 농업에 의존하는 것이 많으
니 만큼 어느 나라를 물론하
고 민주주의 정치체 실현한다
면 이 다수한 농부들을 조공
이라도 등한히 여길수 없는 것
이 을사다.

합류 전체를 위하여 농부들
이 바치고 있는 봉사가 그렇
게 중대할에도 불구하고 그들
은 늘 간단한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수
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에 있어 쌀을 팔고 곡식을 거
두어 드리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부들은 늘
간단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활을 향상할만한 기회가 없
는 것이다. 이 농부들은 어떤
이 적은 것이라고 할수 없었나
이 적은 것이라고 할수 없었나
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민
들은 정치상 문제에 있어 단
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호
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단체
조직 될것 같으면 이 민주주
의 국가에 있어서 그들의 지
위를 크게 향상시키는 기회를
가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자기네들을 진정하게
대표할만한 공직자 公職者들
을 선택하는 것과 또 그들의 인
익을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
킬수 있는 인물들을 투표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을사다. 실
제 나라에 있어서는 그들의
관계 단절되어 가지고 정치체
으로는 물론 헌동조합 운동
중하여 그 경제적 또는 사적
적 지위를 많이 개량되

만약만
레로의
기사로
남인도
수차나
개재되어
사람

한란과
레로의
기사로
남인도
수차나
개재되어
사람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의하여
그리초의 것으로 YMOA가

在日韓人도動亂의破紋

가서 모든 족속
를 살아 아바
와 성령의 일
하를 주교
음二十八장十九절

이상의 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대단한 발전을 하고 있다. 누월 일예 무교회도 높은 책전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그회당은 어떤지 모르다. 자랄만한 있을것임에 찬양하기를 하기까지는 아모를한 결박 3백팔다를 모였을 한기 위하여 지난 7월에 아

와서 표심정음에서 열개 마쳐
민들 흐르는것 같은 비가 새
였으나 선생과 생도들이 협력
하는 노역을 본말이다. 주일학
교 교사들은 각교회에서 참가
하였고 거기서 공부한것을 각
교회 하기학교에서 이용 되었
음으로
경에서 김복화선생도 하고있다
동맹에는 심은택전도사가 개
시다 그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함께 전도하신이중에서 오직
남은 교역자다. 우리는
이같이 오래동안 보전하신하

有
限
會
社

友
愛
書
房

東京都代田区神田神保町一ノ四四

電話神田25六三三七番 振替東京七三四六二番

基督敎書なら 新古和洋書一切
何んでも揃つて居る

唯一の専門店！

THE UPPER ROOM

アパ・ルーム

日本語版 3・4月号發行

アパ・ルームは、英語をはじめ十四の異なる國語版が刊行されている。個人及家庭用の信仰啓蒙のための読物でその發行部数は三三〇万部を超え、世界基督教會での有聲である。

アパ・ルームの日本語版は發行以來常に好評を得て毎回一万余部を刊行、現在日毎に購読は増加しつつある。

アパ・ルームは、一日一頁を讀む任務になつていて、それだけ短めは短時間でも充分読めなましゝの読むを奨励するものが出来る。それらの読物は、世界各國の有力著名の信仰指導者たちの筆にたり、新鮮にして熱心に読め、且つ興味深く今日までこれを用いた人々が口を揃えてこれを推薦している。

出版日
B6判 大四頁
価四〇圓 大六圓
一年六回隔月發行
送五
46
郵便代
英鎊千

武蔵野市
路1416

アパ・ルーム事務所
振替東京
193834